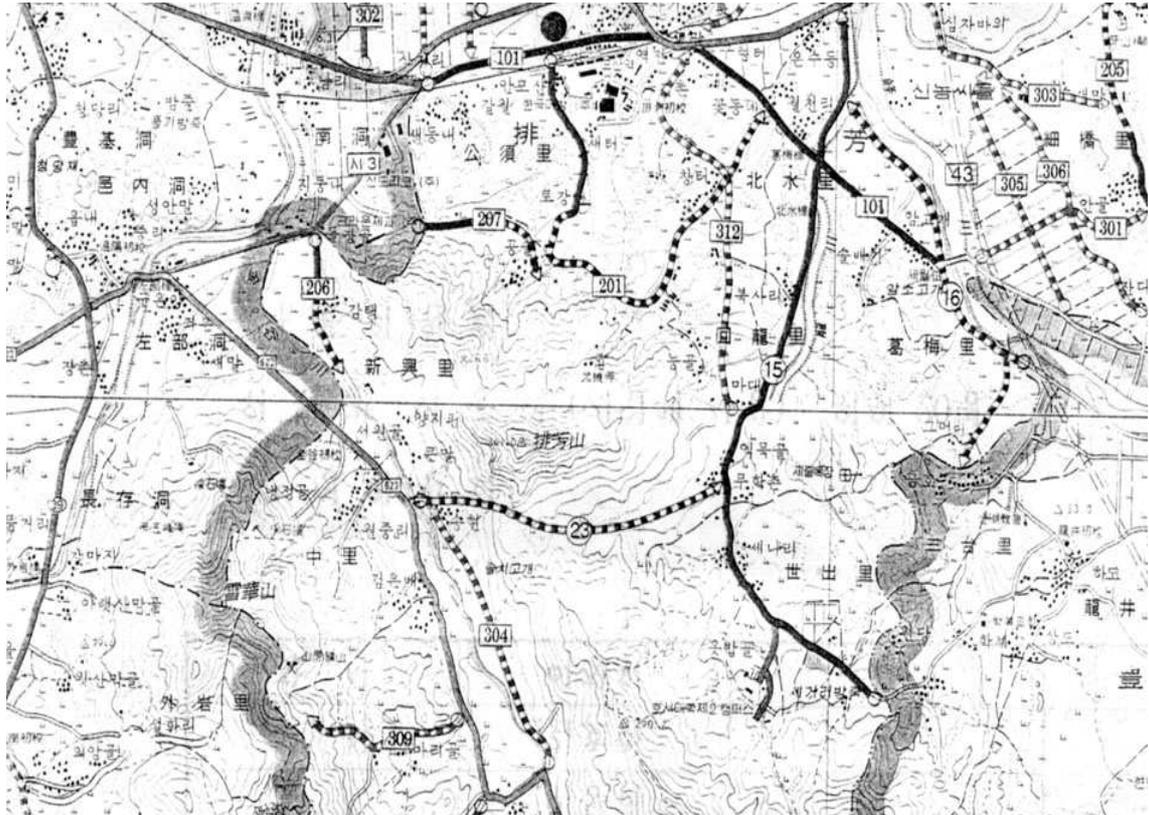


중리·中里

중리는 운양군 군내면의 지역으로서 쇠일의 가운데 마을이 되므로 중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원리, 흑암리, 하리를 병합하여 다시 중리라 하여 아산군 배방면에 편입 되었다. 중리는 3개리로 나우는데 1리는 큰말, 2리는 원중리, 3리는 검은배로 나뉜다. 중리의 총인구수는 476명이며 155가구중 99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리 위치도>



⊗ 큰말(서원골), 원중리, 검은배 마을

큰말, 서원골(중리 1구)

중리 1구를 서원골이라 부르는 이유는 정퇴서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데 정퇴서원은 인조 12년에 시암 조상우 선생이 설호산 동쪽 기슭에 창건하여 정암 조광조, 퇴계 이황, 동포 맹희도, 만전 홍가신 등을 배향하였고 고종 15년에 절폐되었다.

원중리(중리 2구)

자연부락명으로 원중리 바깥세일이라고도 부른다.

검은배(중리 3구)

중리 3구 마을은 검은배 또는 검배라 하는데, 이유는 이 마을 산기슭에 검은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며 흑암이라고도 불리어 오고 있음.

<조사당시 중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중리는 면소재지로부터 남서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623도로로 공주방면으로 가다 보면 좌부동을 지나 금곡초교가 있는 마을이 중리1구(큰말)이며 그 윗쪽이 원중리인 중리2구로 금곡천 앞에 신흥리 마을이 마주 보이며 중리3구(검배)는 수철리마리골과 경계이다.

2) 현황

중리의 인구분포현황을 보면 1리인 큰말마을이 204명으로 많으며 그 다음이 3리인 검배마을이 160명 그리고 원중리가 11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생업에서는 농업이 큰말이 71% 원중리 43%로 제일 적으며 검배가 69%이다. 농경지 현황에서는 44ha로 중리3구 검배마을이 농경지 면적이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구분포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큰말	204명	103명	101명
원중리, 바깥세일	112명	56명	56명
검배	160명	77명	83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큰말	100%	71%	29%
원중리, 바깥세일	100%	43%	57%

검배	100%	69%	31%
----	------	-----	-----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큰말	32ha	20ha	12ha
원중리, 바깥세일	27ha	12ha	15ha
검배	44ha	26ha	18ha

농기계로는 경운기가 많으며 나머지 농기계들도 조금씩 보유하고 있다.

- 농기계 보유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건조기	콤바인	이양기
큰말	9	3	4	3	1	3
원중리, 바깥세일	7	1	3	1	1	2
검배	12	1	3	1	1	4

문화시설로는 노인회관과 검배 있는 마을회관이 있고 회관에는 방송시설과 농악기구가 3개 리 모두 비치되어 있다.

- 문화 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엠프	사물놀이악기
큰말	1	1	1조
원중리, 바깥세일	1	1	1조
검배	1	1	1조

연령별분포를 보면 다른마을은 고령인구가 많은 반면 중리는 1리~3리 모두 어린이 및 젊은 층이 많이 분포됐음을 알 수 있다.

- 연령별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큰말	15	20	6	20	25	35	60	15	8
원중리, 바깥세일	23	8	20	4	12	12	9	10	1
검배	13	10	20	16	20	20	28	14	10

- 성씨별 분포

구분 마을명	맹씨	이씨	윤씨	김씨	민씨	기타
큰말	21%	18%	2%	10%		
원중리, 바깥세일	23%	11%	9%	17%	9%	31%
검배	22%	24%	2%	17%		37%

학생분포에서 큰말은 30명, 원중리는 13명, 검배는 24명으로 조사되었다.

- 학생 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큰말	10	8	6	3
원중리, 바 깎세일	3	4	4	2
검배	7	4	9	4

- 최고령자

중리1리의 최고령자는 96세의 민남숙씨이다. 중리2구는 82세의 맹용순이며 중리3구는 98세의 이달례할머니 이시다.

- 호당평균소득

중리1구는 호당평균소득은 년에 약 800만원이며 중리2구는 약 500만원이며 중리3구는 약 800만원이다.

3) 자연경관

중리는 설화산 밑에 자리잡은 마을로 금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맹씨행단이 있어 잘 알려진 마을이다. 마을 앞으로는 623도로가 있고 그 앞으로 경지정리가 된 논이 펼쳐있으며 설화산에는 채석장이 있어 산을 많이 깎아 흉물스럽다.

4) 마을 변천 과정

중리는 온양군 군내면의 지역으로서 최일의 가운데 마을이 되므로 중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원리, 흑암리, 하리를 병합하여 다시 중리라 하여 아산군 배방면에 편입 되었다.

5) 입향

중리는 처음 터를 잡고 산 성씨는 김씨와 최씨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씨는 최영장군의 후손으로 한동안 이곳을 떠나 살다가 150년 전부터 다시 최씨가 들어와 살았다고 하며 현재는 맹씨들의 집성촌으로 맹사성의 후손이 15대째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450년 이전에 형성된 마을로 추정된다.

6) 지명

·거문배 - 검배

·검 배 - 중리 남쪽에 있는 마을. 바위가 모두 검음

·굴바위 - 말바위 - 검배뒤에 있는 바위. 바위에 굴이 파있었는데 말을하면 울려나옴

·냉정골 - 찬샘골

·서원골 - (서원리) 중리 부근에 있는 마을 정퇴서원이 있었음

·설화암 - 중리 뒤 설화산(군, 산천)에 있는 절. 1932년에 창건됨

·정퇴서원터 - 서원골에 있는 정퇴서원의 터 인조 12년(1634)에 세워서 정암 조광조, 퇴계이황, 동포맹희도 만전홍가신을 배양하였는데 고종 15년에 철패됨.

·치마바위골 - 치마바위가 있는 골짜기. 현재는 없어짐

·치마바위 - 치마바위골에 있는 바위. 고종광무2년(1898) 장마에 바위가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치마를 두른 것 같음.

·행 단 - 중리 300번지에 있는 세종때 정승 고불 맹사성의 집 본래 고려 공민왕때 명장 최영장군의 집인 것을 그 손서 고불 맹사성에게 주어서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독특한 고려양식과 서원 양식을 가미해 지은 건물로 대청이 두칸의 양쪽에 방 한 칸씩 있으며 기둥과 들새에는 단포로 봉의 터로 장식 하였으므로 고적 제 154호로 지정 되었고 이 집에는 맹사

성이 쓰시던 옥통소 1개, 목포 1개, 포도연과 맹사성의 부인이 쓰시던 옥잠 1개가 전하여 온다. 또 앞에 은행나무 두주가 쌍으로 서 있고 단으로 둘러 쌓였으므로 행단이라 하는데 맹정승이 심은 것이라함

·찬샘골(냉정골) - 중리옆에 있는 마을 찬샘이 있음

·큰말(하리) - 중리 아래에 있는 큰 마을

·삼선당 - 구괴정 옆에 있는 마을

·금곡 서원터 - 금곡서원은 동포 맹희도를 제향하던 사우이다. 1837년 4월 20일 그의 옛집에 서원을 세우고 금곡서원이라 칭하게 되었으나 건립된 이후의 연혁은 알 수 없으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1871년에 철폐된 뒤 복원되지 못했다.

·구괴정 - 중리에 있는 우주의 느티나무 정자 맹, 허, 황 세 정승이 각기 3주씩 심었다 하는데 현재는 1주만 남았음.

·설화산 - 중리 뒷산으로 높이 441M로 사화산이다. 온양 아산을 상징하는 산이기도 하다.

·쇠 들 - 중리마을 앞에 있는 들.

·오줌바윗들 - 오줌바위가 있는들, 도로가 생기면서 없어짐.

·오줌바위 - 검배 앞에 있는 큰 바위. 바위 셋이 있는데 장수가 오줌을 누어 갈라졌다함.

·말바위 - 검배뒤에 있는 바위. 바위 에 굴이 파이었는데 말을 하면 울려 나옴.

·쪽두리 바위 - 굴바위 옆에 있는 바위 모양이 쪽두리와 같은데 1962년에 서울 남산에다 국회의원사당을 짓는다고 바위를 가져갔음.

·산방광산 - 검배 남쪽에 있는 광산. 금, 구리, 규석이 나왔는데 해방후에 폐광됨.

·설화산 - 설화산(서달산) : 온양장준동, 좌부동과 송악면 외암리와 배방면 중리에 걸쳐서 있는 산. 높이 441m가 되는 붓끝 같은 봉우리가 솟아 있어서 그 기세가 매우 영특하고 장관이므로 이 산이 비치는 곳에는 인물이 많이 난다함.

·쇠일내 - 배방면 수철리 망경선에서 발원하여 서북쪽으로 흘러 쇠일을 지나 온양 좌부동에 서 온양천으로 들어가는 내

·현 암 - 검배(흑암)

7) 전설

·세덕사

온양 금곡서원이 고종 5년에 철폐당후 현위치 배방면 중리에 이전하여 본사를 건립하였다. 이곳에 상서공 맹유 동포 맹희도 고불 문정공 맹사성을 봉안하고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자손과 유림이 모여 제향을 올린다. 그 이름을 세덕사라 정하고 그 자손이 수호관리하고 있다.

·치마바위

배방면 중리에 있는 설화산 바로 밑에 치마바위가 넓게 깔려 있어 춘추가절에 화접놀이에 좋고 맑은 물이 흐르기도 하여 한때 즐기 좋은 장소로 명이 높았다. 이제는 석광으로 개발되어 채석하여 전의면모를 찾을 길이 없다. 이 치마바위는 치마바위굴에 있는 바위로 고종 광무 2년(1898) 장마에 바위가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치마를 두른 것 같은데 그 사연이 이러하다.

{마을에 가난하게 홀로 사는 총각이 한사람 있었다. 그 총각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나무장사를 하여 그날그날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날인가 그날도 다른때와 마찬가지로 지계를 짚어지고 산꼭대기를 올라 나무를 하려하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총각은 나무를 하다말고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 보았다. 거기에는 한여인이 슬프게 울고 있었다. 총각은 원래 어딘가 모자란 듯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너무나도 딱하게 울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수가 없었다. 여인은 미모가 뛰어났고 눈이 너무도 빛났던 것이다. 여인은 총각에게 이유는 묻지말고 자기를 도와 달라고 애원을 하여 총각은 하는 수 없이 여인을 집에 데려왔다. 총각의 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듯한 초가집에 단칸방 그리고 부엌이 전부였다. 여인은 집에 오자마자 자기집인냥 팔을 걸어 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그동안 쌓였던 먼지와 그릇을 닦고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총각은 어리둥절 하였지

만 속으로는 은근히 좋았다. 다음날 뜻이 맞은 두사람은 결혼을 하였다. 동네 사람들이 모아 놓고 잔치를 하였다.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잔치를 할까 동네 사람들은 의문이였지만 여인이 이곳에 오면서 보물을 가져온것이였다. 총각은 너무나 기뻐다. 돈에 예쁜 색시까지 생기니 얼마나 좋았겠는가! 둘은 남은 돈으로 논과 밭을 사고 그들의 금실은 부러울 만치 좋았다. 그러나 한가지 여인은 자정이 되면 어디론지 나갔다 오곤 하는 것이였다. 총각은 몇번이고 그런일을 목격했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러나 소문은 동네에 퍼지고 말았다. 동네 사람들중에서도 여자가 늦은 밤에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고 급기야는 여자가 여우로 둔갑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모를 심고 있는데 여인이 밭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만 치마 사이로 꼬리가 나온 것을 한 동네 사람이 보고 쾅이를 들고 때릴려고 할 때 그녀는 여우로 변하여 도망치고 말았다. 그녀가 도망치는데 난데없는 맑은 하늘에 천둥과 벼락이 여인은 간데 없고 치마를 두른듯한 큰 바위가 나타났다. 그 바위가 치마를 두른 여인 모습 이라 하여 치마 바위라 불리게 되었다.

·금곡리

아산에서 유명한곳을 들자면 여러군데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맹씨행단은 빼놓을수 없는 아산의 유적지가 아닐까 생각된다. 맹씨행단은 중리에서도 2구 마을로 옛 이름은 금곡동이였다. 맹씨행단은 고려시대의 명장 최영장군의 집인 것을 그 손서 고불 맹 사성에게 주어서 그때부터 맹씨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독특한 고려 양식과 다비식을 가미해 지은 건물로서 한가운데 대청이 두칸이고, 양쪽에 방한칸씩 있으며, 기둥과 도리새에는 단포로 봉의 화려 장식하였으므로 고적 제 154호로 지정 되었고, 이집에는 맹 사성이 쓰시던 옥통수 1개, 목포 1, 포도연과 맹 사성의 부인이 쓰던 옥잠 1개가 전하여 온다.

맹씨 행단이라 한 것은 맹 사성 고택 앞에 270년 된 은행나무 두주가 쌍으로 서 있고, 단으로 둘러 쌓았으므로 행단이라 하는데, 맹 사성이 심은것이라 한다.

맹사성을 소개하자면 호는 고불이며, 고려말부터 조선 초기의 정치가로 이 고장에서 최고의 인물로 손꼽히며, 청렴결백한 자의 표상이기도 하다.

맹사성을 낳기전 어머니가 태몽을 꾸었는데 태양을 삼켰는데 그후로 맹사성을 낳게 된것이라 한다. 그의 아버지는 맹희도라 하는데, 고려 말기의 문신으로 고려 공민왕 14년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아버지 상서공유공께서 절개를 지키며, 사문동에 들어가자 따라서 벼슬을 그만두고, 현재의 배방면 중리인 이곳에 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맹희도를 제향하던 사우를 금곡서원이라 하는데, 1837년 4월 20일 그의 옛집에 서원을 세우고 금곡서원이라 칭하게 되었으나, 건립된 이후의 연혁은 알수 없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고종8년)에 철폐된 뒤 복원되지 못하였다.

마을에는 효자 맹희도와 효자 맹사성 효부 양주 조씨, 효자 맹흥규의 정려가 있는데, 맹 사성 정려의 안에는 명정현판과 비가 봉안되어 있다. 효부 양주 조씨는 맹희도의 처로 조선조 현종때 정려를 하사 받았고, 맹흥규는 맹사성의 후손으로서 정려를 받은 시기 및 관직등은 비의 훼손으로 알아 볼수 없다.

중리 3구를 가는 도중에 정자가 있는데, 구괴정이라 부르고 있다. 구괴정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년전 세종대왕이 직위하여 있을 때 고불 맹사성은 좌의정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삼인제상 (황희, 맹사성, 허형)이 세본씩 기념수로 느티나무 9그루를 심은 것이 여덟그루는 중간에 죽고, 오직 한그루만이 살아서 생장 하였다. 이 나무가 고목이 된 후에 곁에서 나온 결순 나뭇가지 하나가 커있으며, 원래의 고목은 죽어 썩어서 없어지고, 오직 한그루(결순) 가지만이 지금까지 살아 있는데 이것이 있는 곳을 구괴정이라 부르고 있다. 이 구괴정에서 정사를 논하고, 시를 지어 답론 하였으며, 농번기에는 농부들을 불러 격려를 하여 농심을 불러 일으키던 곳이었다. 지금은 낡은 정자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정자를 지어 보존하고 있다. 구괴정 옆에 있는 마을을 삼선당이라 부르는데 고불 맹사성에 얽힌 이야기중 삼선당에 얽힌 설화가 내려오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구괴정에서는 맹, 황, 허 삼정승이 한자리에 모여 국사를 논하기도 했다하여 후세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가리켜 삼산당 혹은 삼신당이라 일컫어 내려오게 된것이 60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이외에도 맹사성에 대한 이야기는 많으나 그중 검은소에 대한 설화이다.

맹정승은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늘 검은소를 타고 서울을 다녔다. 당시의 정승이면 사인교를 타고 다니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그는 항상 검소하고 서민적이였다.

어느날 조정에 일이 없어 집에서 책을 읽다가 머리카락 식혀볼 겸 밖으로 나와 설화산을 오르

고 있던 중 청년들의 떠드는 소리에 그곳으로 가보니 검고 큰 소갈은 짐승을 청년들이 막대를 휘두르며 잡으려 하고 있었다. 정승이 다가서자 청년들은 놀라 엎드리고 검은소는 정승의 옆으로 다가와 꼬리를 흔드는 것이었다. 맹정승은 청년들을 보내고 검은소를 어루만지자 검은소는 집까지 따라와 맹정승이 보살피게 되었다. 이 검은소를 검은 암소 또는 검은 기린이라고 불렀는데 점점 자라 얼마안가 몸집이 커졌다. 성품이 온순하여, 나라일을 보러 가는 맹정승이 늘 타고 다녔는데 정승이 죽자 소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그소를 정승의 묘 옆에 묻은후에 그 무덤을 흑기총이라 불렀다고 하며 기린이 나타났던 곳을 기린고개라고 부른다고 한다.

·설화산

설화산을 문필봉이라 하여 이곳에 사는 사람이면 글씨나 문장에 남다른 소질이 있다고 한다. 또한 식수가 전국 제일로 유명하여 일정때 물을 일본까지 가져다 먹었다 한다. 설화산에는 만공체라하여 활쏘는 신이 지키고 있어 도둑질을 하지도 못했으며 설사 했더라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설화산의 지세가 그래서인지 좋은일이나 나쁜일이나 쌍으로 일어나서 누가 죽으면 반드시 또 다른 한사람이 잇달아 죽는다고 한다. 그리고 나라에 큰일이 있으려면 설화산이 슬피 운다고 한다. 옛날 유명한 중국 지관이 설화산에 와보더니 7층 8장 즉 일곱의 정승과 여덟의 장수를 널 지세를 타고 났다고 말하면서 설화산 꼭대기에 옥초초 전지라는 큰연못자리에 시체를 묻으면 대대로 정승이 난다고 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의 묘 자리를 찾고 있던 사람들은 그 명당자리를 쓰려 했으나 중국 지관이 장군 후세에 길이 빛날 명장이었으나 전쟁터에서 너무나 많은 살생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장군에게 맞지 않는다 해서 묘를 쓰지 못했다. 그 뒤로 설화산의 명당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 몰래 투장을 하고 했으나 그때마다 연못의 맑은물이 뒤집어지고 개들이 설화산을 향해 짖어대며 날이 가물어 몇 달을 두고 비가 한방울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잦은 곳을 하고 지성을 드렸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허름한 스님이 동네를 지나면서 말하기를 시체가 묻혔기 때문이라고 하여 동네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서 파보니 정말 시체가 있어 다른곳으로 이장하니 그때부터 비가 쏟아져 가뭄을 면했다고 본다. 그뒤로도 비가 안오면 설화산 그 자리를 파보았다고 한다.

·잉어못

맹사성의 나이 8세때 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하여 사성은 정성을 다해 약을 쓰고 의원도 불러서 약을 해 보았으나 병환은 차도가 없었다. 늘 어머니곁을 떠나지 않고 병간호를 하던중에 잉어를 고아 들이면 낫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엄동설한에 사성은 얼은 손을 불며 잉어를 잡으러 온종일 돌아다녀도 낫물은 꿈뽕 얼어붙고 추위는 뼈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어머님의 고통에 비하면 이까짓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잉어를 꼭 잡아야 한다" 하고 꿈뽕얼은 연못을 뚫어 마침내 잉어를 잡았다. 잉어를 잡아 어머님께 드리니 병은 씻은 듯이 나아갔다. 소탈한 생활을 한 그는 이처럼 효자요, 정사에 사용이 없어 깨끗하게 임금님을 섬기는 청백리로 뽑혔다. 지금은 그 못도 어느자리인지 찾을 길 없지만 충과 효, 사욕 없는 정사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로 하며 그 이름은 밝게 빛나리라 본다.

·쪽두리바위

옛날에 작은 한 나라에 왕자가 태어났다. 왕은 잔치로 왕자의 탄생을 축하 하였다. 같은 날 다른 하늘나라에서도 공주가 태어났다. 해가 바뀌어 공주와 왕자는 무럭무럭 자라나 16세가 되었다. 그러나 공주는 그만 병을 앓게 되어 명약이라는 명약을 다 썼지만 병은 차도가 없었다. 그런데 하늘의 의원이 공주의 진맥을 하더니 아주 심한 병이라고 하며 지상의 깊은 산골에서 나오는 샘물에 목욕을 하면 낫는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공주가 직접 가서 목욕을 해야 효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지상에선 한참 사냥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왕자의 16세되는 탄신일을 축하하기 위해 사냥을 통해 그 용맹함을 나라안에 떨치게 했다. 왕자도 참가 하였는데 산속 얼마를 가니까 하늘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땅위에 내려지고 있었다. 하도 이상하여 그곳으로 타고 가보니 빛은 없어지고 빛이 있던 곳에 연못이 생기고 그곳에 어여쁜 아가씨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 너무도 아름다워 그만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다. 목욕이 끝나자 공주는 바위위로 올라가 머리를 빗고 있었다. 왕자는 자기도 모르게 말에서 내려 공주를 불렀고 공주는 깜짝놀라 움츠리고 바위 구석으로 몸을 감추었다. 왕자는 계속 낱자를 부르며 찾았다. 그런 왕자를 본 공주는 그의 늙름하고 멋진 모습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반해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사랑에 빠진 왕자는 저녁이 되어서야 정신이 들어 아쉬움을 남기고 바로 이 자리에서

보름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러던 중 날이 갈수록 공주가 왕자를 그리워 하자 시녀가 옥황상제께 지상에서 있었던 일을 고하고 말했다. 옥황상제는 공주에게 이일을 묻자 공주는 이때다 싶어 왕자와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애원 했다. 옥황상제는 딸의 간곡한 부탁에 한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네가 지상에서 30일 이내에 왕자의 사랑을 얻어 쪽두리를 쓰고 왕자의 각시가 된다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면 너는 돌이 된다." 공주는 지상으로 내려와 왕자를 만났지만 왕자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였다. 왕자는 다음달에 태자비 간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공주와 왕자가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임금이 보낸 엽담꾼이었다. 엽담꾼은 임금께 이사실을 고하였고 임금은 화가나서 왕자가 사냥을 나가는걸 금하였다. 왕자는 몰래 밤에 담을 넘어 공주를 찾아갔는데, 그것을 알게된 임금은 공주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왕자는 공주를 데리고 임금 앞에 가려 했으나 공주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왕자는 혼자라도 허락을 받아오겠다고 돌아갔을대 어명을 받은 무사가 그만 공주의 가슴에 활을 쏘아 꿰뚫자 공주의 비명과 함께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 그 무사를 죽이고 공주는 이리하여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는 임금의 마음을 돌려 놓았다. 왕자는 기쁜 마음에 달려왔지만 공주가 있던 곳에 빛이 감돌더니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빛이 있던자리엔 큰 바위가 생겼는데 마치 쪽두리 같은 모양이었다. 왕자는 그 자리에서 흐느끼고 그후로 태자비를 얻은 왕자는 매일같이 이곳에 와 쪽두리도 못쓰고 저승으로 간 공주의 한을 달랬다고 한다.

쪽두리바위는 1962년 국회 의사당을 짓기 위해 바위를 떼어 갔다고 전한다.

·말바위

말바위는 검배 뒤에 있는 바위로 바위에 굴이 파여 있다고 하며 말을 하면 울러 나온다해서 말바위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이 말바위에는 신비한 전설이 담겨 있었다. 내용인즉 마을에 매일 같이 나무를 해서 팔아 근근히 목숨을 연명하는 정도의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던 나뭇꾼이 있었다. 그 나뭇꾼은 단 하루라도 배불리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나뭇꾼은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올라 갔는데 피곤한 나머지 잠시 잠이들고 말았다. 그 사이에 꿈을 꾸었는데 폭포수가 흘러 내리는 밑에서 여섯 명의 선녀들이 즐겁게 목욕을 하고 있었다. 깜짝놀라 잠에서 깬 나뭇꾼은 꿈이 너무 생생하여 주위를 둘러 보니 어디선가 물소리가 나더라는 것이었다. 나뭇꾼은 냇을 잃고 그 광경을 보다 선녀들이 목욕을 마치고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고 따라 갔다. 선녀들이 어느 굴인가로 들어가는 것을 나뭇꾼은 따라 갔는데 굴안에 들어가자 파란하늘이 보이고 물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선녀들에게 발견이 되고 말았다. 나뭇꾼은 목숨만 살려 달라며 자기가 이곳까지 오게된 사정을 말하자 선녀들은 그의 착한 심성을 알았는지 사흘동안 최대의 호의를 베풀어 나뭇꾼을 대접했다. 그런후 바깥세상에 내보낼때는 이곳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만약 누설을 할 경우에는 바위가 될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나뭇꾼에게 제물을 선물하였고 나뭇꾼은 집으로 돌아와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던 어느날 갑자기 나뭇꾼은 그때의 일을 말하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그러다 그만 나뭇꾼은 아내에게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 어느사인가 기와집은 없어지고 나뭇꾼이 앉아 있던 자리에는 바위가 생겼는데 그후 말의 교훈이 담긴 바위로 전해내려 오고 있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서원골 마을에서는 2월 초하루에 장승제를 지내고 있는데, 옛날에는 나무장승 이었으나 풍파에 썩어버려 돌장승으로 세우게 되었다. 장승제는 저녁과 새벽에 두 번 지내는데 2월 초하루날 저녁에는 마을 입구에 있는 돌장승 앞에서 지내고 새벽에는 중리3구 쪽으로 나가는 입구에 있는 돌장승에 제를 지내고 있다.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는 없으므로 애경사가 있을 때는 부녀회 위주로 이루어지고 상을 당했을 때 청년회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하고 있다.

금곡동마을은 명절에 율놀이를 하기도 하며 보름때가 되면 경로 잔치를 하기도 한다.

검은배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초 나흘날에 도네 입구 근처의 아릅드리 느티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옛날 괴질 (유행병)이 마을에 만연하였을 때, 어느 노인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동네 입구에 나무를 심고, 성황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면 마을엔 괴질이 발생하지 아니할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노인의 꿈 이야기대로 성황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 그러나 성황당은 없어지고 대신 성황당 자리엔 「흑암 성황 지위」라는 글자가 새겨진 비석이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효자 맹희도

고려 말기의 문신으로 고려 공민왕 14년에 문과에 급제 하였으나 아버지 상서공께서 절개를 지키며 사문도에 들어가자 따라서 벼슬을 그만두고 현재의 배방면 중리인 금곡동에서 후배 양성에 힘썼다.

·효자 맹사성

고려말부터 조선 초기의 정치가 임 동포 맹희도의 아들로 정려의 안에는 명정현판과 비가 봉안되어 있다.

·효부 양주조

효부 조씨는 맹희도의 처로 조선조 현종때 정려를 하사받음

·효자 맹흠규

맹흠규는 맹사성의 후손으로서 정려를 받은 시기 및 관직등은 비의 회손으로 알아 볼수 없었다.

10) 종교단체

기독교 - 금곡교회

설화산 교회

기도원 - 설화산 기도원

11) 공장현황

삼성 물류센터

온주개발

12) 마을특성

신창맹씨는 집성촌이며 아산의 명산인 설화산 아래쪽 마을로 맹씨 행단이 있어 유명한 마을이다. 중리1리 에는 금곡 초등학교가 있는데 폐교니, 배방분교니 하는 소문이 있었으나 좌부동에 초원아파트가 생기면서 학생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리고 채석장이 있어 명산인 설화산이 흉물스럽게 변모되어 아쉽다.